

# 오피니언

## 다산포럼

염재호



하와이대학의 미래학자 짐 데이토 교수는 21세기를 '꿈의 사회(Dream Society)'로 규정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우리 인류는 발전해왔고, 이제는 꿈의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꿈의 사회라는 것은 미래가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에 살게 된다는 것이다. 사실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가상의 현실에 더욱 빠져 들고 있다.

꿈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무관한 많은 일들에 열광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생선이 직접 관개 하천을 염수하면서 주시투자에 열을 올리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거대한 선물투자나 주식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게임 같은 금융상품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다. 프리미어 리그를 시청하느라고 밥을 새우고, 박지성 선수가 맨유와 계약했다는 뉴스에 마치 가족이 취직된 것처럼 기뻐한다.

언론은 끊임 없이 우리의 흥미를 끌어 당기는 뉴스들을 양산하고 있다. 인터넷

포탈의 뉴스제목들은 클릭하지 않고서는 못 배길 정도로 우리의 관심을 자극한다. 대학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하는 고전처럼 '1박2일' 같은 버라이어티 쇼나 '개그콘서트' 같은 프로그램들을 다운받아서 보고 있다.

## 우리 사회의 진실과 허상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보고 눈물짓고 감격하며, 노래경연에서 누가 탈락할 것이고 누가 새로 등장할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제 '아바타'와 같은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 수입이 자동차 수출액 보다 많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도 아니게 되었다.

이처럼 꿈의 사회가 되다 보니가 본질보다는 허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지속적인 가치보다 순간적인 이미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사물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전문가의 고뇌를 양버논에 빠진 비겁한 태

도라거나 권위의식만 남은 지식인의 한계로 매도하기도 한다.

오히려 문제를 단순화하여 명쾌하게 판단을 내리는 아마추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페도난마에 열광한다. 더 나아가 언론과 인터넷은 사실을 과장하고, 급속한 전파력으로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흥분시키고 즉흥적인 판단에 빠지게 만든다.

TV의 조명을 받으면 하루 아침에 국민요정이 되기도 하고, 국민여동생이 되기도 하고, 국민MC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건 하나에 영웅은 순식간에 만들어낸다.

즉흥적인 허상에 근거해서 판단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바로 실체를 알게 되어 실망하게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때의 영광과 곧 이은 비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은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극도의 영광과 극도의 좌절감이 반복되는 정서적 불안감에 휩쓸려 심한 조울증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것 같아 걱정이다. 초선 국회의원들이 대거 공천에서 탈락하고, 또 다른 바람몰이에 의해 다수당이 탄생할 것 같다. 이제서 꿈의 사회로 바뀌어 갈수록 우리 사회가 허상보다는 진실에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 모두 힘써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바람몰이로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보다 접근하여 진정성을 보여주며 국정운영을 하도록 변화해야 한다.

지식인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층도 보다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사회의 지식적 분위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꿈의 사회로 갈수록 얕은 이미지보다는 깊이 있는 지식적 판단으로 여론을 이끌어가는 품격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시 실

### 나주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시급하다

나주에 들어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의 산학연클러스터 용지가 단 1필지도 분양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당 139만 원의 높은 조성원가 탓에 우려했던 미분양 사태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민주당 조배숙 의원이 최근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 받은 '혁신도시별 산학연클러스터용 부지배정 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 중 부산만 100% 분양이 완료됐고, 광주·전남과 전북 등 나머지 7곳은 분양이 1필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나주 혁신도시는 지난해 9월 분양가를 인하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높은 조성원가와 정보통신·농업생명 분야로 입주기관이 제한돼 미분양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다.

평당 139만 원에 달하는 조성원가는 교통과 접근성 등 입지 여건이 좋은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하면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미분

양 사태가 속출하면 혁신도시 공동화하는 불가피하다. 국토균형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국토해양부는 과거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높은 토지보상비와 기반시설비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높은 분양가는 주택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미 분양이 조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이전과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산학연클러스터 용지를 포함한 조성원가 인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나서서 부지매입 상황 등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혁신도시의 성공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지속적인 지원이 담보돼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소홀했던 이명박 정부가 아마저 외면한다면 두고두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지역 저축은행 내실 경영에 더욱 주력해야

정부는 지난 18일 토마토, 제일, 제일 2, 프라이م 등 7개 저축은행을 영업정지했다. 이로써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구조조정 명단에 광주·전남 지역 6개 저축은행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초 목표 보해저축은행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지역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다더라면 저축은행 업계는 물론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지역 저축은행들이 그동안 외형보다는 내실 경영에 주력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지역 고객들의 불만은 완전히 가시지 않았다. 지역 저축은행들이 더욱 내실경영에 힘을 쏟아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쌓아야 하는 이유다. 사실 고객들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자 자산비율(BIS)에 대해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도 영업정지된 업계 2위

인 토마토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작년 12월 기준 8.62%이었는데 이번엔 -11.47%로 조사됐다. 제일저축은행도 8.2%에서 -8.81%로 뒤바뀌었다. 에이스저축은행은 8.20%에서 무려 마이너스 51.10%로 추락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고객들은 BIS만 믿고 돈을 맡겼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이 같은 저축은행에 대한 불신의 불꽃이 지역 저축은행에도 튀지 않을까 우려된다. 건전한 지역 저축은행까지 회생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따라서 지역 저축은행들은 투명한 내실 경영으로 신뢰를 쌓아 고객의 불안심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고객들도 금융당국이 "정상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듯이 지나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 NGO 칼럼



남규주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분권화되면서 국가사무에서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특별한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복지수요에 발맞춰 어쩔 수 없이 증가한 자연증가분(예를 들면 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복지바우처 사업 등) 때문이다.

### 지역복지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지방분권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책무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수요자를 연령대와 가족구조, 경제력의 정도, 근로능력의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지로 지역복지체제를 전환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사회복지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시 예산(약 3조원) 대비 약 9000억원으로 무려 30%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파른 재정이 열악한 광주시는 급증하는 복지서비스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그러나 복지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의 주체인 광주시의 정책 방향이 성장보다는 분배위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한 물적 토대가 취약한 경제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분명한 것이 없는 분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적절한 사회적 재분배 없이는 급속한

노령화나 사회양극화에 따른 빈곤 인구의 증가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이 불가피하다.

민선 5기 지방정부에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복지접근에서 벗어나 광주시 스스로 사회복지에 대한 기획, 조사 및 연구, 서비스 향상의 실천에 적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분권화가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고 지역 주민이 지방정부에 복지에 대한 적극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보편복지를 위한 지역 스스로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공급처를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흔히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관련 부처나 부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타 부처의 예산이 보건복지부 예산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가령 문화관광부

에 문화 또는 체육에 관한 예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중소기업청, 지방보훈청 등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방분권 이후 재정난을 들어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affirmative action)를 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최근 들어서는 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복지거버넌스(지역 주민, 시민단체, 복지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복지협의체)를 통해 특화된 보편적인 지역복지정책의 큰 틀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겠다.

최근의 안철수 신드롬에서 보듯이 이제는 성장일변도로 전후좌우 살피며 여유도 없이 오로지 잘 뛰는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달려야 하는 사회는 아닌 것 같다. 이제는 같이 뛰면서 넘어지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뒤쳐지는 사람은 부축해서 함께 뛰어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참여자지21 사회복지위원장>

## 기고



박철홍

지금 제주주는 온통 중국 전통의 붉은 물결 일색이다. 외국인 단체관광 사상 최대 규모인 1만1200명의 중국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寶健日用品有限公司) 인센티브 관광단이 제주를 찾아서다.

중국의 바오젠 유한공사는 건강용품, 화장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직원 총수가 10만 명이 넘는 대형제조회사다. 바오젠 회사 리다오 총재는 "1만 명 방문은 이번이 시작"이라며 "중국 기업의 많은 인원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한국 양국의 민간교류를 확대 발전시키는 큰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은 우리 관광업계의 최대 고객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 1998년 처음 방문한

이래 매년 꾸준히 늘어 지금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중국인일 정도다. 앞으로 중국관광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해외로 나간 중국인 관광객 수는 1993년만 해도 374만 명이었지만 작년엔 5400만 명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관광객이 2020년엔 1억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중 10%만 국내로 불러와도 1000만 명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팽창하는 중국의 해외관광 수요에 비하면 한국 방문 관광객 수는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는 연간 200만 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한다. 이 중 전남·광주의 중국관광객 방문자 수는 전남은 작년엔 3만 명 정도, 광주는 1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고 역사적으로도 어떤 지역보다 연관이 강한 전남·광주로서는 치욕적인 방문 관광객 수치이다.

### 중국관광객 유치, 인프라부터 갖추자

지금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 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부터 치밀하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한다.

관광에 있어서 전남·광주는 한 몫이 수밖에 없다. 전남·광주가 지금부터라도 관광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국 관광객을 비롯한 관광객 유치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야 한다.

특히 늘어나는 중국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수용할 유·무형의 인프라 확충이다. 지금의 전남·광주 상태로는 이번 제주도를 방문한 수준의 중국관광객이 와도 걱정이었을 것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무턱대고 관광객을 유치했다가는 광주·전남 관광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 중국 전문 관광종사자를 체계적으로 더 많이 육성하고 숙박시설 확충 등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 관광객에게 다양한 놀 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철저하게 중국관광객들에 대한 특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리다오 총재는 "여행단이 이번에도 인천공항을 경유해야 했다"며 제주와 중국을 잇는 직항노선이 많이 필요하고 또 카지노나 골프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현금 한도액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리다오 총재의 말에 음미해볼 부분이 많다. 카지노 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광수입을 창출, 많은 국가들이 투자를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도 무조건 규제만 할 일이 아니다. 카지노 산업은 도박 산업이기 보다 이를 미끼로 각종 국제회의, 모임을 유치하는 컨벤션산업 육성의 길이기도 하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전제로 한 카지노 양성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바오젠 관광단 제주 유치는 대한민국 관광사의 한 획을 긋는 쾌거다. 엄청난 규모도 놀랍지만 전략적인 유치과정도 더 돋보였다. 무엇보다 제주도와 한국관광공사, 주중 한국대사관의 유기적 협력의 결과라는 점이 평가할 만하다. 전남·광주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전남도의회 의원>

주라고 불리는데 이 술이 과연 얼마나 위생적인지 알 수가 없다. 특히나 정말 한 번만 쓰고 버린다면 곰팡이가 피거나 이물질이 낄 염려가 별로 없겠지만 이걸 재탕 삼탕하

면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다. 대나무통을 사용하는 업소들의 안전의식과 청결을 주문하는 바이다.

▲강성규·광주시 동구 율림동

### 음식점 대나무통에 곰팡이...위생관리 철저해야

대나무 통에 밥을 짓거나 혹은 술을 담아서 파는 음식점을 자주 본다. 요즘은 식당들도 튀어어 산다며 나름대로 대나무 통을 가지고 특화한 것이다.

필자도 얼마 전 대나무 통에 잡곡밥을 짓고 또 약주를 담가 파는 꽤 알려진 맛집에 갔었다.

음식점은 대나무 통이 주는 약효와 건강에 좋은 이점을 이것저것 적어서 식당 내부 곳곳에 붙여놓고 손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음식점 대나무 통 약주에서 곰팡이를 발견했다. 음식점은 매일 새 대나무를 쓰고, 한번 쓴 대나무 통은 약효가 떨어져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통은 몇 번 사용했는지.

술이 나오는 통 입구에서 하얀 침전물이 보였다. 그 바닥엔 곰팡이가 넓게 퍼져있었다. 통 안에서 검은 이물질들이 보였다. 대나무 통 약주는 보통 죽통주, 혹은 대통

###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 無 等 鼓

광복 직후부터 호남인들은 비하에 시달려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전라도 하와이' 필화사건이다. 한 시인이 잡지에 '하와이 근성 시비'라는 글을 게재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불러왔다.

이 기고문에서 "전라도는 간혹과 해신의 표상"이라고 헐뜯었다. 이어 "전라도 출신들은 우선 인륜에서 제외해야겠고, 동료권에서 제외해야겠고, 친구에서 제명해야겠기에...(중략) 하와이 말살론의 대두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상식 이하의 격한 표현을 했다. 이 글이 나온 후 호남인들은 크게 공분했고 결국 잡지가 폐간되는 곤욕을 치렀다.

이후에는 정치적인 문제로 호남인들은 또 시달렸다. 박정희 시절부터 영·호남으로 갈린 극한 정치적 대립으로 생겨난 지역감정 때문에 호남인들은 소외와 압박을 겪어야 했다. 이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문화와 예술의 분향, 수재들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부분 희석돼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근의 해프닝은 그동안 호남비하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박혀있는지를 반증한다. 연세대 응원단이 전라도 지역을 비하하는 듯한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철거한 촌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연세대 응원단이 내건 현수막에는 '오오미 승상님 시방 고대라 하셔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오오미'는 전라도 사투리 감탄사인 '오메'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다.

'하와이, 오오미' 연세대 응원단 전 대통령을 회화화한 것으로 호남지역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해프닝에 대해 연세대 응원단은 '유머'였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가슴에 상처를 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고 발랄하게 여겼다면 그 경박스러움이 서글프다.

아울러 호남사람들은 아직 바깥에 남아 있는 '비하'의 잔영이 흑어 자신을 때려내어 예술의 분향, 수재들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부분 희석돼가고 있는 중이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일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문회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